협의회장소

오찬이 진행된 장소

원두막

나루터와 나루배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전하는 쑥섬협의회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의 성지 평양을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대동강 한복판에는 쑥섬이 있다.

예로부터 쑥이 많고 쑥향기에 묻혀있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쑥섬이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37(1948)년 5월 2일 이곳에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백두산발을 주름잡으시며 《동방의 맹주》라고 허세를 부리던 삼도왜적을 쥐락펴락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몸가까이 모시고 둘러앉은 남조선대표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지없었지만 그들은 좀처럼 어려움과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있었다.

남조선대표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일성**빨찌산이야 왜놈들이 무서워했지 한민족, 한동포들이야 왜 어렵겠는가고 하시며 우리 더운데 웃옷을 벗고 담배도 피우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손수 대표들에게 담배도 권하시고 불도 붙여주시였다.

한없이 소탈하시고 겸허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인품에 끌려 남조선대표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풀려 수령님가까이로 서로 다가앉아 정을 나누었으며 그리하여 한가정과도 같은 단란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이 그동안 평양에 와서 벌린 활동과 남북련석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개괄하신 후 그들의 소망과 의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당면한 활동방향과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정세의 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면서 뚜렷한 방략과 묘술을 펼쳐가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남조선대표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서로 의사가 충분히 소통되고 합의에 도달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국통일방략에 대하여 명백히 강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주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의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벌릴데 대한 문제, 망국적인 《단독선거》책동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는 직접선거로, 남조선에서는 비합법적인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전조선적인 최고립법기관과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문제 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해방된 조국앞에 드리운 민족분렬의 어두운 그늘을 밀어내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사리정연하게 밝혀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남조선대표들은 눈앞이 탁 트인다고 하면서 저저마다 자기의 소감과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주의주장, 리해관계에 앞서 민족앞에 닥쳐온 분렬의 위기를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구국통일의 기치밑에 합작단결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품고있는 민족적량심과 통일구국, 반미구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고 너그럽게 흔연히 합작단결하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의무로, 같은 피줄을 타고난 조선사람으로서의 의리로 여기고있다고 뜨거운 민족애의 정이 넘치는 말씀을 하시였다.

계속하여 수령님께서는 미소어린 눈길로 남조선대표들을 둘러보시다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량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잡을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헤아릴수 없이 드넓은 도량, 만민을 뜨겁게 품어안는 포옹력이 응축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받아안으며 남조선의 인사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편견, 오해에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을 깊이 후회하면서 련공합작, 련북통일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미구국, 련공애국투쟁에 나선 그들의 신변문제까지 걱정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남조선에 나가면 더욱 삼엄한 감시와 박해를 받게 될것이며 회유기만과 중상비방, 협박공갈 지어는 테로까지 당할수 있으므로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김구선생은 감동된 어조로 공산주의에 대해 편협하고 옹졸했던 이 늙은것들을 그처럼 믿어주시고 신변안전까지 걱정해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토된들 여한이 없을것이라고, 놈들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굴함없이 싸워 기어이 련공합작을 실현하겠다고 자기의 결의를 말씀드렸다.

그의 말에 남조선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찬동을 표시하였다.

사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남조선의 완고한 우익민족주의자들과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합작을 할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만큼 공산주의에 대한 우익민족주의자들의 편견과 불신, 경계심은 뿌리깊은것이였다.

그러던 그들이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북에 와서 보고 체험하는 과정에 공산주의에 대한 오해와 위구심을 차츰 가시고 그날의 협의회에 와서는 련공합작과 통일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였으니 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인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공산주의자라면 무력대고 적대시하던 세력들까지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운 민족단합의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고 그 누구도 머리숙이지 않을수 없는 절대적권위와 특유의 견인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런 정치적기적, 그들의 인생전환을 안아오실수 있었던것이다.

진정 쑥섬협의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합의 출발을 선언한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회합이였다.

본사기자 최광혁

4월남북련석회의의 나날에

쑥섬협의회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앉아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시원한 강가에 나가서 휴식도 하고 장기도 둡시다라고 하시면서 사이강으로 나가시였다.

양복을 벗으시고 강물에 성큼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몸소 반두채를 잡으시고 고기잡이를 하시며 수원들에게 고기잡이묘리를 가르쳐주기도 하시였다.

반두를 들 때마다 붕어와 쏘가리는 물론 숭어와 잉어도 걸려들군 하였는데 그이께서는 그 고기들로 어죽을 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시원스럽게 헤염을 치시여 사이강어구에서 대동강으로 나가시였다.

정력이 넘쳐나는 그이의 젊고 건장하신 모습,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민족의 창창한 앞날이 그대로 내다보이고 통일의 대문도 열리게 되리라는 확신과 기대로 가슴벅차오르게 하는 그 모습을 누구인들 감동없이 뵈올수 있었으랴.

이때 원두막에서는 남조선에서 13정당협의회와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서 북남협상파세력을 함께 주도해온 홍명희선생과 조소앙선생이 장기를 두고있었고 조완구, 최동오, 백남운, 엄항섭선생들은 곁에서 훈수를 들고 있었다.

그러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립하전의 찬 강물에 들어가시여 천렵을 하시고 수영을 하시는것을 보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전 화성의숙 숙장이였던 최동오선생은 22년만에 장군님께서 수영을 하시는 모습을 다시 뵙게 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화성의숙에 다니실 때 수영법이 출중하신것은 알고있었지만 민족의 령도자로 숭앙받고계시는 지금도 저렇게 소탈하게 수영을 하실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소앙선생은 《**김일성**장군님은 결코 북조선만의 령도자이시거나 공산주의자들만의 령도자가 아니시오. 남북조선 온 민족과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공동으로 다 함께 추앙하는 최고령도자이시오. …》라고 경모의 정을 토로하였다.

《온 민족이 추앙하는 최고령도자》

쑥섬협의회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을 위한 오찬을 마련해주시였다.

수양버들이 늘어선 사이강기슭의 큰 버드나무밑에 돗자리를 깔고 키낮은 상을 련결시킨 식탁우에 어죽과 회를 비롯하여 대동강의 물고기로 만든 료리들과 록두묵 등 여러가지 음식이 올랐다.

모두가 음식상에 빙 둘러앉자 수령님께서는 축배잔을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대동강의 이름난 물고기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오늘 섬에다 음식을 차려놓았으니 사양말고 많이 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떠나가면 어려운 일들을 벌려야 하겠는데 통일대업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오찬에 참가하여 흥분해있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어죽과 숭어회도 권하시면서 이렇게 강변에 둘러앉아 어죽을 쑤어먹는 맛이 별맛이라고 하시였다.

너무도 허물없이 따뜻이 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육친의 정에 대표들모두가 목이 메여올라 선듯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지난날 거치른 이역땅에서 식민지민족이라고 천시를 받을 때는 물론 남조선에 돌아와서도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는 세상이다보니 언제 한번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적이 없던 그들이였다.

더우기 반공에 눈이 멀어 한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인생말년에 이르러 북에 와서 민족을 알게 되고 련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민족주의자들로서는 은정넘치는 오찬상앞에서 누구나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수가 없었다.

김규식선생은 자기 한생에 이처럼 마음즐겁게 들놀이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민족적향취가 깃든 음식을 들며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거듭 올리였다.

김구선생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수 잡으신 물고기로 쑨 죽은 난생처음으로 먹어보는 별음식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한생을 돌이켜보았다.

참으로 온 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모시고 진정을 터치며 통일의 순간을 누려본 잊을수 없는 오찬이였다.

동포애 넘친 오찬

4월남북련석회의가 끝나고 남측대표들이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구선생을 만나주셨을 때의 일이다.

담화가 끝나자 숙연히 자세를 바로잡은 김구선생은 한가지 소청을 들어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소청을 드리였다.

그 인장으로 말하면 김구선생과 그의 동료들이 3.1운동을 계승하는것으로 자부하는 림정의 상징이였다. 림정은 김구요, 김구는 곧 림정이라는 신조를 안고 그렇듯 소중히 간직하였던 인장을 그가 스스로 내놓은것은 수령님이시야말로 참된 민족의 령수이시라는 굳은 믿음이 가슴속에 자리잡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그저 인민의 두터운 신임만 있으면 그만이라시며 그것을 사양하시였다.

얼마나 겸허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인품인가, 바로 이런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받들어나갈 참된 령도자이시다, 그분이 공산주의자이시면 어떻단 말인가, 그런분이시라면 백번이라도 운명을 같이할것이다, 김구선생의 심장은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련공이란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공산주의자와 제휴한다는것을 뜻할진대 위대한 수령님께 림정의 법통을 받아주실것을 간청드린 이 뜻밖의 행동이야말로 김구선생의 진실하고 참된 련공에로의 극적인 인생전환을 의미하였다.

본사기자

백범의 인생전환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사회적진보를 위한 혁신정당들의 출현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중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서 혁신정당들이 광범히 대두하였다.

전쟁전시기 중간정당과 일부 우익정당에 속하여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거나 그를 지지하였던 민주인사들, 전후의 진보당활동시기에 혁신정당운동에 참가하였던 인사들, 4.19인민봉기이후 새로 정치무대에 등장한 민주인사들이 중심이 되여 새로운 혁신정당조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혁신정당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등장한것은 사회대중당이였다.

1960년 5월 12일에 사회대중당창당추진위원회가 구성되였고 6월 17일에는 서울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각 도당 및 시, 군당의 창당추진대표자 6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대중당창당준비전국대표자대회가 진행되였다.

그밖에도 5월에 혁신동지총련맹결성준비위원회와 《한국사회당》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와 같이 발족한 혁신정당들은 장면《정권》조작이후에 다시 분산통합과정을 거쳐 사회대중당, 혁신당, 통일사회당 등으로 재편성되였다.

4월인민봉기후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기세가 계속 높아간 반면에 외세에 아부굴종하는 파쑈매국세력은 급격히 고립약화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당시까지 거의 비법화되였거나 억눌렸던 혁신세력들은 합법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되였고 재야정치세력의 기본력량을 이루게 되였다.

혁신정당들의 계급적기초는 주로 중산층과 민족자본가였다. 이 당들은 파쑈매국세력을 반대하는 중산층과 민족자본가들의 혁신적지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였다.

혁신세력은 파쑈매국세력의 반민족적,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켜나가려는 점에서 공통적지향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러한 지향성으로부터 혁신정당들은 리승만의 《자유당》이 대표하는 파쑈매국세력과 날카로운 대립을 이루게 되였고 당시 인민대중의 지향과 합류되게 되였다.

혁신정당들의 출현과 건전한 발전은 사회적진보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4.19봉기직후 사회적정의를 위해 굴함없이 계속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